

각 총림 갑신년 동안거 해제 법어(요약)

머무름 없는 근본은 무엇입니까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 해인총림 방장)

물종적(沒蹤跡)하고 단소식(斷消息)이여 운무근(雲無根)이여니 풍하색(風何色)고 자취가 사라지고 소식이 끊어짐이여 구름은 뿌리가 없거늘 바람에 무슨 빛깔이 있었는가



언제까지나 손을 잡아 이끌어 주리라는 법도 없고, 대중들도 반드시 그것에 의지해서 가라고 하는 법도 없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제는 스스로 손을 잡아주는 것이요, 해제는 스스로 가 스스로를 의지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법안문의 선사에게 어떤 남자가 "머무름 없는 근본에서 일체의 법을 세운다고 하였는데 어떤 것이 머무름 없는 근본입니까?"라고 묻는 것에 대하여 석산존원 선사의 법을 이은 임제종의 장산찬원(蔣山贊元) 선사는 "머무름 없는 근본으로부터 일체의 법을 세운다고 하니..."라고 크게 말하고는 주장자를 높이 들고서는 말했습니다.

"주장자는 머무름 없는 근본이다. 이 주장자는 아침에 서천(西天)으로 갔다가 저녁에 당(唐)나라로 돌아온다. 사방세계를 모두 이 주장자가 세운 것이니 말해보라. 형상 없는 도량도 세울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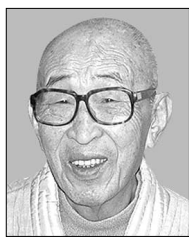
해제대중들이 형상 있는 도량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제대로 주장자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입니다. 해제 후의 만행길은 모두 형상 없는 도량입니다. 형상 없는 도량에서 다니는 것 없이 다닐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법안 선사의 뜻이요, 장산 선사의 마음에 계합되는 것이요, 이 산승의 해제법문에 대답하는 일인 것입니다.

찰진도회(刹塵道會)에 처져보현(處處普賢)이요 누각문개(樓閣門開)에 두두미륵(頭頭彌勒)이로다. 티끌세계에서 도와 만나니 곳곳이 보현이요 누각의 문이 열리니 일마다 미륵이라

법안문의 선사에게 어떤 남자가 물었습니다. 머무름 없는 근본에서 일체의 법을 세운다고 하였는데 어떤 것이 머무름 없는 근본입니까?" 이에 법안 선사가 대답하였습니다. "형상은 바람이 생기기 전에 일어나고, 이름은 이름이 생기기 전에 생겼느니라."

사실 공부 가 되지 않는 것은 삼계(三界)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삼계에서 애착하는 일들을 몽땅 털어버려야 하니 털끝만큼이라도 애착이 남아 있으면 그것은 아직 결제가 덜 끝난 것입니다. 꿈속에서 화를 내거나 기뻐하는 것은 삼계의 혼침과 산란이며, 또 익숙한 경계라고 정신을 차리지 않는 것도 사실 혼침과 산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꿈속에서 화를 내거나, 깬 후에 익숙한 경계라고 소홀히 하는 것 모두 혼란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인들은 이것을 환금(幻金) 즉 헛것인 금덩이를 끼고 다니는 것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금은 광석 속에 묻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꿰뚫어 볼 수 없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결국 각자가 가진 인복의 문제인 것입니다. 스승이라고 해서 반드시

봄날 풀은 스스로 푸르도다



수산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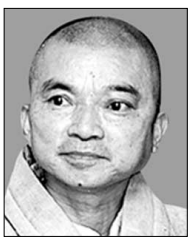
어느 날 임제 선사(臨濟 禪師)가 시종(示衆)할 때에 이르되 "내가 황벽 선사(黃檗 禪師) 처소에서 세 차례 불법(佛法)의 울바른 대의(大義)를 묻다가 세 번이나 방망이를 얻어맞았는데, 마치 썩대밭로 두드리는 것 같았다. 이제 다시 한 방망이를 맞고 싶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때릴런고?" 하니,

이때에 어느 수좌가 대중 가운데서 나와서 이르되 "제가 때리겠습니다"함에, 임제 선사가 주장자를 들어 수좌에게 주었더니 그 수좌가 잡으려고 하거늘 임제가 문득 때렸다.

대중(大眾)은 임제 선사의 응용처(應用處)를 잘보라, 여탈자재(與奪自在)하니 조응동시(照用同時)니라.

승하여 이르되 "춘초자정청(春草自靑)이요 화지자장단(花枝自長短)이로다(봄날의 풀은 스스로 푸르고, 꽃가지는 스스로 길고 짧더라)."

개울물소리 바위를 쏘아...



지허 스님

(태고총림 선암사 칠전선원장)

선방에 남아있거나, 가행정진을 하면서 밭 답는대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돈독하게 조사관을 단속(團束)하여 타파해야 합니다.

조사스님의 마음을 바로 보고 알아차린다면 청풍명월이 내 소유요 청산백운(靑山白雲)이 내 소유입니다.

호호탕탕(浩浩蕩蕩)하여 한 티끌도 없습니다. 한 티끌 없는 것은 마음에는 생각이 없고 윤회도 없습니다.

능(能)이라는 풀이 있습니다. 이는 은 진흙에다 뿌리를 두고 물속에 줄기를 뻗어 물위에 잎을 내는데 이 있는 마치 바늘모양으로 쭈뼛쭈뼛하고 다년간 서는 식물입니다.

이 능이풀이 날마다 쭈뼛쭈뼛하니 대중들은 이 도리가 무슨 도리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마디 이르십시오.

조계의 높은 봉우리 오르니 오래가니 세간의 사람 일에는 나는 재능이 없었네

개울물소리 바위를 쏘아 청알에 부르고 산빛은 구름헤쳐 눈앞에 증증하구나.

20여년 장좌불와·오후불식

자유 스님

(범어사 조실)

1931년 일본 동경에서 태어나 중학교 과정까지 일본에서 마쳤다. 해방과 함께 귀국, 1949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50년 상월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와 비구계를 수지했다. 20년 가까이 장좌불와와 오후불식을 한 스님은 꼼꼼하게 주석을 달면서 간화선의 대표적인 선어록인 <선문촬요> 강의로 유명하다. 또 봉암사, 원효암 등 제방선원에서 수십 안거를 성만하고 현재 범어사 조실이다.

'북 송담 남 진제'로 통해

진제 스님

(동화사 조실)

한국 근대선의 거봉 경허 스님 이후 해월, 운봉, 황곡 선사로 이어지는 법맥을 이은 선사로 수좌계에서는 '북(北) 송담 남(南) 진제'로 통한다. 1931년 경남 남해

생. 54년 석우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57년 통도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28살 때(61년) 화두 관문을 뚫고 항곡 선사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이며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 조계종 기본선원의 조실을 맡고 있다.

조계종 선원장회의 의장

해국 스님

(총주 석좌사 금보선원장)

1949년 제주생. 1961년,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70년 범어사에서 해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대승사 봉암사 칠불사 등에서 정진했

으며, 69년 해인사에서 10만배 정진을 마친 뒤 팔만대장경각에서 오른손 세 손가락을 연비하기도 했다. 77년부터 제주 남곡선원에 무문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등 선 수행 풍토를 진작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해왔다. 현재 조계종 선원장회의 의장이다.

조계종립 특별선원 기틀 세우

고우 스님

(봉화 각화사 선덕)

1937년 성주생. 20살 때 청암사 수도암에서 법회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58년 청암사에서 서옹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63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관음 스님으로부터 <기신론>, 고봉 스님으로부터 <금강경>, 혼해 스님으로부터 <원각경>을 배운 후 김홍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1968-9년 문경 봉암사 선원을 재건해 조계종립 특별선원의 기틀을 다졌다. 각화사 태백선원장을 지냈다.

제방선원에서 30여년 수선안거

인각 스님

(범어사 금어선원 유나)

1940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인각 스님은 범어사에서 나온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범어사 강원 대교과 졸업 후 태안사에서 범통 스님을 모시고 <화엄경>을 열

람했으며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30여 년 동안 수선안거했다.

현재 범어사 금어선원 유나이 며 조계종 기본선원 운영위원장 과 전국선원 수좌회 공동대표를 맡아 간화선풍 선양에 진력하고 있다.

'선농일치' 직접 실천

현산 스님

(구례 화엄사 선동선원장)

1943년 전남 담양생. 1961년 19살 때 도천 스님(現 화엄사 조실)을 은사로 출가했다. 64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고 1997년부터 화엄

사 선동선원장을 맡고 있다. 노동을 통한 선수행을 하고 있는 도천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선농일치(禪農一致)'를 직접 실천하고 있다. 자상한 법문으로 유명한 스님은 현재 조계종 전국선원 수좌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조계종 禪 기본교육 '수장'

지환 스님

(조계종 기본선원장)

서울고등학교 1학년 때 룸비니 불교학생회에 들어가 불교에 입문했고 대학생활교원연합회 구도부 시절 성철 스님을 만나 선 법문을 듣고 발심, 1967년 해인사에

서 출가했다. 69년 광덕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뒤 해인사 백양사 운문암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지리산 쌍계사 금당선원장을 맡았으며, 현재 조계종 기본선원장과 동화사 선원장을 맡고 있다.

재가선방 설치 지도

무여 스님

(봉화 축서사 선원장)

1940년 경북 김천생. 군복무 시절 조계사에서 <반야심경>을 듣고 발심, 66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희섭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상원사 동화사 송광사 해인사 관음

사 칠불사 망월사 등 전국 선원에서 40여 년 동안 수선안거했다. 1987년 이후 봉화 축서사에 주석, 재가선방 '선열당'을 짓고 재가 불자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고 있다. 칠불사와 망월사 선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기본선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해인사 선원서 30여년 참선

원웅 스님

(해인총림 해인사 수좌)

1938년 전남 고흥생. 성곡관대 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1972년 해인사에서 성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74년 범어사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고, 지

금까지 30년 넘게 해인사 선방에서 참선수행 중이다. 2004년까지 7년간 조계종 기본선원의 교신사를 맡았으며, <서장> 강의로 유명하다. 현재 해인총림의 수좌총림에서 방장 다음으로 가장 위자리에 앉은 어른도 해인사 선방을 이끌어 오고 있다.

봉암사에서만 30여년 정진

정광 스님

(문경 봉암사 태고선원장)

1942년 경남 창원생. 20대에 <금강경>과 <임제록>을 읽고 발심, 61년 쌍계사에서 대월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이후 40여 년간 선원에서 정진해 온 스님은 선과

교를 겸비한 대표적인 선승으로 알려져 있다. 봉암사에서만 30년 이상 정진한 스님은 '봉암사 지증대사적조법비(보물 제138호)' 등 선종사 관련 비문들을 번역, 연구한 결과를 묶어 <지증대사비명소고>를 펴내 한국선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 '해제법어' 전문은 www.buddhanews.com ● 제작 마감관계로 이후 나오는 '해제법어'는 다음호에

제16기 전생·빙의/영치유법 특별강좌!

전생(前世),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최면·전생·빙의/영치유법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 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교육내용 과절별 교재 및 실습태요 제공

빙의 치유법	● 빙의 진단법 → 빙의명확인 → 영가와와 대화 → 영가친도 → 친도확인 → 재결심 방지 영치유법 ● 악령제압법, 제3자를 통해 빙의된 사람의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를 통한 원경제령 친도법 ● 신도가 자기 몸 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고 영가가 떠나는 것을 확인할 수 도 있다.
전생요법	● 전생과 현생은 천룡보다 절긴 연결고리로서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여 현재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고통의 단서를 찾아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 한다.
정통사주명리학	● 사주로 조상 영가, 빙의 보는 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형사, 약사로 저승사자가 따라 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 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 자는 이생에서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 사주 "군경쟁제요".....
최면학	최면의 원리, 자기최면, 타인최면 유도법, 최면 심리치료, 자율훈련, 최면 명상법 성격개선,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공포증 소거법, 집중력 기억력 초 증강법 슬픔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는 후회면 건망법, 자연 치유력 활성화법 등

빙의(憑依)란? 흔히 귀신들림으로 말해지며 영혼이나 강력한 힘, 절대적 신의 힘이 사람에게 침투하여 삶의 전반이나 특정 증상에 영향을 주고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내 안에 누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나를 조정할 수 없다", "누군가 내 머리속에서 뭐라 얘기하는 것 같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등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상한 행동, 괴벽, 정서불안,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환청이나 환각, 악몽, 가위눌림 등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빙의의 영가의 생전시 질병이나 사고 부위에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세계 보건기구(WHO)국제 질병 분류에는이를 포제션(Possession)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원인을 불명시에도 나타 영가를 의심해봐야 한다.

본 강좌 개강

3월 16일(매주 수요일) 오전10시~18시까지 7회 과정

- ▶ 신청요령 : 전화접수 및 방문신청
- ▶ 교육비 : 200만원
- ▶ 입금계좌 : 조흥은행 591-01-008086
- ▶ 예금주 : 한국의식개발원

교육이수 후 무료 재수강 및 지속적인 자문지원



통신교육 방식

- ▶ 전생·빙의/영치유 전체교육내용을 실황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를 매주 1회(2시간용 3개씩)우송(7회과정 비디오 테이프 총 20개)
- ▶ 실습능력 점검 및 질의응답 등 보충교육을 위해 1회 분원에 출석수업
- ▶ 특전:수료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한국전생빙의연구회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 ▶ 교육비 : 200만원

원장 상담학 박사 임재형

주최 : 한국 전생·빙의연구원
주관 : 한국 최면과학원

전화 : (042) 255-0734-5
주소 : 대전시민회관후문 청운빌딩 (2층 본원 강의실)대전역에서 5분거리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 본 교육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거나 1만원을 송금하시면 공개강좌 비디오 및 안내 자료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3월 9일 오후1시~3시까지

한국생활최면심리학회 회장
대한 최면심리학회 부회장
한국치유학회 대학원 겸임교수
SBS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KBS, iTV, CMB 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및 다수 대학에서 강의